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사는 달
선교주일 / 선교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성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하나님 앞으로	사역과 행사 안내 찬양과 경배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오정은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요한복음 5:19-29 영생에 대한 확신을 굳건히 가집시다!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찬송 542장 / 구주 예수 의지함이 (통일찬송가 340장)
헌신과 나눔	봉 헌 / 최선운 집사, 유덕하 집사 * 봉헌찬송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삶과 세상으로	* 마라나타 주 예수여 * 축 도 / 김성배 목사

〈*표는 모두 일어 셉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묵상으로 준비하십시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요 찬양 예배

8:00 pm

기도 : 김훈태 집사

말씀 : 김성배 목사 / 열왕기하 20:35-43

하나님의 뜻을 이룰 기회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 ▶ 8월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사는 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삶속에서 체험하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는 축복된 삶을 살도록 합시다.
- ▶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충성스럽게 사역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로 충만한 성도가 됩시다

1. 오늘은 선교주일이며 금주는 선교주간입니다.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 전도자, 성도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 섬김의 교회가 기도로 후원하는 박은주 선교사와 박윤숙 선교사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예배실에서 선교소식을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3. 전교인 수련회가 노동절 연휴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모두 참여합니다.
☆ 일시 : 9/2(주일)-9/3(월) ☆ 주제 : 찬양과 기도
☆ 주일 오후부터 친교와 나눔, 찬양과 기도의 영성수련회, Lock-in 으로 진행됩니다.
4. 주일 성경공부(출애굽기) 모임이 계속됩니다. 생명의 삶, QT 나눔과 기도, 말씀과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5. 예수님을 만나야 할 이웃, 친구와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삶으로 복음을 나눕니다.
6. 주일학교와 Youth 사역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Sagar 전도사와 고순제 전도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합니다.
7. 3주년 감사찬양집회와 준비를 위한 Relay 기도가 계속됩니다. 초청할 이웃의 명단을 예배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동정

- ▶ 한국방문 / 건강 : 구은강

기도제목

1.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2. 박진성 집사의 완전한 회복과 최윤정 학생(눈)의 빠른 치유를 위해
3.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정홍렬 목사가 건강(신장기능)을 유지하도록
4. 교우들의 사업이 믿음 안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운영, 발전하도록
5. 좋은 English Ministry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6. 주중 성경연구(소선지서/에스라/느헤미야/부흥강의들)를 위해

예배 섬김이

주일예배기도	8/19	8/26	9/2	9/9
	구 민집사	오정은집사	김태성집사	구은강집사
금요일예배기도	8/24	8/31	9/7	9/14
	정줄리권사	김훈태집사	박진성집사	최선운집사
주일헌금위원	8/19	8/26	9/2	9/9
	유덕하집사/최선운집사		구 민집사/유동숙집사	
주일안내위원	8월		9월	
	최내권집사		정줄리권사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경쟁을 초월한 승리자가 됩시다!** / 요한복음 5:1-9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예수님은 북동쪽 끝, 온갖 병자들이 모인 다섯 개 행각들이 있는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셨다. 거기에서는 천사가 내려 온 후 물이 움직일 때, 경쟁을 뚫고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한 사람만이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었다. 예수님은 38 년 동안 병을 앓는 자가 기대한 대로 최고의 호의(섬김)로서 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도록 하시지 않았다. 세상 생존경쟁 법칙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쳐 주셨다. 그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이처럼 문제해결은 치열한 생존경쟁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성도는 여유롭게 양보하며 손해도 자청합니다. 그러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경쟁을 초월한 참된 승리자가 되자.

영생에 대한 확신을 굳건히 가집시다! / 요한복음 5:19-29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을 비난하였습니까?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생에 대한 확신 위에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을 굳건히 가집시다! / 요한복음 5:19-29

예수님이 안식일에 베데스다에서 38년 동안 병을 앓던 자를 고쳐주신 것을 보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이들은 율법만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보고 달라져야 했고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헛된 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는 심판의 날, 마지막 날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뉘게 됩니다. 믿음 있는 자는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되는 반면, 예수님을 거부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지옥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음성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음성이 될 것이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음성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당장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의 하나는 우리가 영생을 의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영생을 의심하는 한 절대로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감히 시험하지 못하도록 든든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사탄의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과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영생을 주심을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구원의 확신 위에서 성장해 나갑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온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속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마지막 날에 울려 퍼지는 예수님의 음성이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읽고 묵상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주장하시며 우리 심령에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 영생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 위에서 신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 우리를 부르실 예수님의 음성을 간절히 고대하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는 성도가 됩시다.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교회와 선교

...예수께서 멀리 있는 자들(이방인)과 가까이 있는 자들(유대인)에게 화해를 설교하셨다. 그분께서는 당신 자신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두 집단을 하나로 만드셨다. 그분께서는 '서로 원수가 되어 갈리게 했던 증오의 담을 헐어버리셨고 증오를 종식시키셨다.'

나는 내 인생 경험에 의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언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셨다. 내 출신 배경은 무슬림이었지만 이제는 내 마음속에 유대인에 대한 사랑이 있음을 나는 알고 있다. 예수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화해시키신 것처럼 무슬림과 유대인을 화해시키실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화해할 때,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19-21)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들과 한 가족이 되었다. 주님에게 우리는 모두 성전이다. 그야말로 화합과 평화가 구현된 모습이다.

마지막으로, 이전에는 원수였던 사람들로 구성된 이 성전에 누가 사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22)

유대인, 이방인, 예전의 무슬림, 무신론자, 우상숭배자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다.

- 마크 A. 가브리엘 < 이슬람과 유대인 그 끝나지 않은 전쟁 > 중



관행을 깨는 용기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에라 20:32, 33)

법조계에는 전관예우라는 것이 있다. 보통 판검사를 하다가 그만두면 변호사가 되는데, 그만 둔 판검사의 자리는 후배가 맡게 된다. 이러한 경우 판사나 검사는 변호사의 후배가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선배에 대한 예우를 해주는 것이 관례였다. 당연히 폐단이 많은 관행이기 때문에 점차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관행이라는 것을 쉽게 무시할 수 없다. 오래전부터 대다수가 암묵적으로 해오던 것을, 자신이 깬다는 것이 상당한 부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냥 남들 다 하는 대로 따라 가게 된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여호사밧도 산당을 관행에 따라 두었다. 산당이란 백성들이 간편하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장소였다. 문제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만이 아니라, 우상에 대한 제사도 함께 했다는 것이다. 이런 산당은 백성들에게 중요했는데, 만약 산당이 없어지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 멀리 있는 다른 성전까지 가야했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민심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우상에게 제사함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든 왕들이 산당을 묵인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 때문에 여호사밧도 전관예우의 폐단처럼 산당만은 그대로 둔 것이다.

혹시 우리 삶에도 이 같은 관행이 있지는 않은가? 알게 모르게 내 삶에 적당히 자리잡아 묵인하고 넘기는 잘못된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가? 예컨대, 주일예배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신앙원칙에 반해 쉽게 주일예배를 빠지는 게 삶의 관행이지 않은가. 지금까지 큰 탈 없이 신앙생활 해 왔기에 이제는 말씀의 경고를 받고 신앙 양심에 찢려도 적당히 넘어갔는지 모른다.

또 한 예로 한국교회에 많이 실행하는 특별새벽기도가 있다. 늘 새벽에 기도를 하면 좋겠지만 이렇게라도 기도하하니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어떤 이는 이런 저런 이유로 “내 삶엔 새벽기도는 없다.”라고 하며 특별한 목적이 있는 새벽기도라도 자신의 관행에 따라 묵살한다. 한 번 생각해 보자. 철저히 관행을 따라 신앙생활 함으로 얼마나 신앙이 성장했는지. 만일 나의 신앙이 몇 년 전과 다르지 않다면, 그 이유가 나만의 신앙 관행 때문은 아닌가? 하나님이 변하라고 말씀하시어도, 나는 관행에 따라 예전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내 믿음과 삶의 질은 예전과 똑같은 것 아닌가?

만약 현재 신앙생활도 관행에 따르며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만 가지고 그러려니 지난다면 신앙과 삶의 수준에도 큰 변동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만일 과감히 관행을 깨고 전에 없이 신앙생활에 열심을 낸다면, 당장 불편함은 있겠지만 이를 통해 큰 신앙의 성장을 이루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도 관행을 깨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쉽지 않지만 내 삶에 관행처럼 내려오는 악한 습관들을 다 깨고 순종할 때,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EM PASTOR

CHILDREN'S MINISTER 고순제 전도사

YOUTH MINISTER SAGAR 전도사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주 일 예 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1:30 AM

주 일 학 교 /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0:30 AM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5:40 AM
SATURDAY 6:00 AM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성 경 공 부 / BIBLE STUDIES : SUNDAY 1:30 PM
WEDNESDAY 7:00 PM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60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